

사이버 인천 차이나타운의 空間敍事와 場所記憶

-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인천 차이나타운 활용을 위한 제언

文丁珍*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인천: 화교, 식민, 기억
 - 1) 開港과 租界
 - 2) 介介과 融合
3. 차이나: 국가, 이주, 자본
4. 타운: 공간, 장소, 다문화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시대는 많은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험적 학습이 강조되는 오늘날,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중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중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현실 공간과 함께 차이나타운에 대한 소개 사이트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이 운영되고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은 중국 문화, 한중 근현대사, 다문화 관련 교육 등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 공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사람들 역시 차이나타운의 공간들이 지닌 교육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차이나타운의 먹거리에 대한 정보와 역사를 안내판 및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생리적 호기심으로 차이나타운의 먹거리를 즐기는 것이

* 성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아니라, 문화의 이해와 지적 습득의 계기로 삼기를 원한다.¹⁾ 인천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지역은 “개항기의 이국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인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2013년 1학기 중국문화 관련 수업 중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롯한다. 과제의 주제는 한국에서 중국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 탐색이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장소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었고, 중국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일수록 방문 장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5년 2학기 중국문화 및 도시 관련 수업에서는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했고, 인천 차이나타운을 관광지나 오락공간으로서만이 아닌 교육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인천 차이나타운 관련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이 제시하는 ‘차이나타운 소개’ 등의 항목별 설명을 검토하려 한다. 사이버 인천차이나타운이 보여주고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서사는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구현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화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 서사에 내재된 장소 기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시도되는 제언들이 인천 차이나타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 공간 구성에 관한 실질적 협력 방안으로 연결되는 작은 단서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인천: 화교, 식민, 기억

1) 開港과 租界

2003년 구축된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은 2010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나날이

1) 김영국, 「인천 차이나타운 방문객의 체험요소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학연구』 22, 2015, 237-238쪽.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최근 모습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천 차이나타운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대폭 개편하여 오픈한 것이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은 “인천의 소중한 문화와 관광자원인 차이나타운을 널리 홍보하는 것”은 물론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와 자료,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는 공간, 나아가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²⁾ 사이버차이나타운의 소개는 “누구보다도 눈물겨운 세월”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보내며 “화교 사회의 명맥을 이어 오신 분”, 바로 화교³⁾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華僑를 한자의 의미대로 풀어보면 華란 중국인을 가리키고, 僑란 잠시 거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외국 영토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모두 통칭하여 “華僑”라 일컫는다. 1909년의 청나라 헌법과 1929년의 중화민국 헌법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화교라고 부른다.”(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한국화교이야기/화교란?)

상서대전(尙書大典)과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건너가 살게 된 역사는 고대 문명과 주대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화교사회가 정식으로 형성된 것은 19세기인 1882년부터이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한국에 이주한 화교는 누구일까?

그림1. “한국화교의 태동”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에서 인천 차이나타운 소개는 조선 화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尙書大典』과 『漢書地理志』의 관련 기록에 대한 간략한 기술로 시작한다. 이후 바로 이어지는 근대 조선 화교에 대한 서술에 의하면 “약 130년 전인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의 군인과 함께 온 40여명의 군역상인들이 이 땅에

2)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 소개/인사말 <http://www.ichinatown.or.kr/>

3) “중국인들이 외국에 이주한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른다. 그러나 정식으로 華僑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약 100여년 이전인 청나라 말기부터이다. 1898년 중국인들은 일본 요코하마에 학교를 세워 정식으로 화교 학교란 이름을 지어 이 때 세워진 화교 학교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옛날 청조와 조선이 서로 교환한 문서에 따르면 화교에 대한 명칭이 清朝人, 華人, 清商 등으로 명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한국화교이야기/화교란?).

정착하면서 시작된” 화교의 수는 급증하여 “1883년 48명이던 화교가 1년 후에는 5배에 가까운 235명으로 늘어났고 1890년에는 화교가 약 1천명에 이르렀다.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건축 방식을 본뜬 건물과 청나라 관청(청국 영사관)도 설립⁴⁾되고 오늘날 말하는 차이나타운의 최초 형태가 형성된다.”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들의 이주에 대한 기억은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쿠바 등의 상당히 많은 지역의 화교 1세대들이 겪었던 디아스포라적 경험 및 트라우마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⁵⁾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최초 노동자부터 근대 중국의 불안한 정국을 피해 이주한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중국인 거리가 형성된 것”에 비하여, 인천 차이나타운의 형성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한다. 이는 짧은 기간 진행된 “근대화 과정” 및 “상업”과 깊게 연계되어 있다.⁶⁾ 그래서 “밀려드는 외국인을 맞는 곳”으로서의 인천항에는 “약삭빠른 일본인”이 세운 호텔⁷⁾도 있고, 산동성에서 한국으로 온 “우회광이라는 분”이 지은 회관⁸⁾도 세워진다. “속국”으로 조선을 인식한 “당시 청나라 사람들”, 즉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1세대에게 조선은 “돈벌이가 잘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청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또한 받고 있었다.⁹⁾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의 상업적 기반 형성의 근간은 다름 아닌 조선이 처한 식

4) “조선시대 말 청국은 1883년 일본이 인천에 조계지를 설치한 후에야 1884년 청국지계를 설치하고 청국이사부, 혹은 이사서라 호칭하는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그 후 이곳은 청일전쟁으로 폐쇄되었다가 1898년 다시 문을 열고 자국의 거주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전쟁에 휩싸이며 영사관도 폐쇄되었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중국관련불거리/청국영사관 터 및 회의청).

5) 임채완,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 서울: 북코리아, 2013, 171-214쪽.

6)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차이나타운역사.

7) “인천이 개항되고 당시 밀려드는 외국인을 맞는 곳은 인천항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양이었기에 당시 가마나 조랑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교통기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곳에서 목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들이 목을 여관이 변변히 없다 보니 약삭빠른 일본인이 재빠르게 호텔을 세운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중국관련불거리/(구)대불호텔터).

8) “1905년 산동성에서 우회광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는데 그는 인천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산동회관을 지어 간단한 음식점과 여관업을 한다. 1911년 청나라가 중화민국으로 건국하니 산동회관의 명칭을 공화춘으로 하였고 이곳은 나중 유명한 중국 음식점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중국관련불거리/(구)공화춘건물).

9)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차이나타운역사.

민의 상황이었다. 고종 19년(1882년) 임오군란 이후 들어온 초기 한국 화교들의 경제적 번영은 1882년 청조가 조선과 맺은 상민수륙무역장정(商民水陸貿易章程) 및 1884년 인천화상조계장정(仁川華商租界章程), 1894년 11월 청상보호규칙(淸商保護規則)의 체결의 결과인 셈이다.

청국조계는 1만6500m²(약 5000평)에 불과했다. 현재 차이나타운의 '풍미'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삼국지 벽화가 그려진 지점까지가 청국조계의 북쪽 경계였다.¹⁰⁾

하지만 “역사의 무게가 현재의 삶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를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한편, 자신의 존재를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경향이 그 어떤 역사체보다 강한 중국”¹¹⁾과 관련된 인천차이나타운에 대한 소개에서 역사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비단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이 지닌 서술상의 특징만은 아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형성과정에 대한 담론 및 서사의 주요 근거가 될 연구 총서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교 관련 연구총서로 출간된 서적에서는 공통으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언급한다. 이 章程의 前文에 ‘조선은 오랫동안 번봉(藩封)의 열(列)에 있었고 전례(典禮)에 관한 일체의 모든 것이 제정되어 있기에 갱의(更議)의 필요성은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조선과 淸의 정치 외교적 관계 설정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연구에서 “널리 알려졌듯이 전문 8조로 이루어진 이 무역 장정은 청국이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가까운 우방이었던 조선에게 고스란히 강요한 사실은 근대 한중관계사에서 무척 불행한 사건”에 머물러 있다.¹²⁾

“중화민족이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가진 화교의 이주는.....조선과 청국 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¹³⁾

10) 차준호, 「인천 차이나타운 '100년 캡슐' 열렸다」, 동아일보, 2015.7.9.

11) 秦裕光, 『중국인 디아스포라 한국 화교 이야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4쪽.

12) 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부산: 산지니, 2013, 24쪽.

“조선을 ‘藩屬’ 또는 ‘속방’으로 위치시켜왔던 종래의 책봉관계를 서구적 국제질서의 핵심 중의 하나인 조약에 의해 재확인했다.”¹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이 청국의 ‘속방(屬邦)’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종주권의 강화뿐만 아니라 상업상의 특권을 획득하였다.”¹⁵⁾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학자와 일본학자의 번역 자료들은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前文에 대한 해석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석들에는 전근대 “번봉(藩封)의 열(列)”에 있던 조선이 근대적 식민체계의 식민지와 동일하게 인식될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 제국주의의 팽창을 배경에 두고 형성되기 시작한 조계지와 관련된 역사적 개념 및 사건에 대한 균형 있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2) 紹介과 融合

조공 형식의 공무역을 제외한 사무역이 일체 금지되던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 국내의 상업이 두드러지게 발달하기 시작한 17세기 무렵 민간 상인을 통한 청나라와의 무역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특히 조선과 중국의 사신들이 넘나드는 국경의 관문 지역들은 정치·외교적 측면뿐만이 무역의 중심지로서도 중요시되었다.¹⁶⁾ 역관과 상인의 모습들이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쓰인 野談 속 한중 경제 교역의 상황에서는 대중국 교역 조선 상인의 진취적이고 과감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야담에 더해진 허구성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중계무역으로 행운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행운과 기회의 땅”이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사신들의 왕래와 함께 발달하기 시작한 민간 상인들의

13) 임채완 외의 『화교 디아스포라-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 60쪽에서는 前文에 대한 특별한 해석 없이 2003년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에서 출판된 최승현의 『韓國華僑史研究』(3-17쪽)을 인용하고 있다.

14) 야스이 산기치(安井三吉), 『일본 제국과 화교』, 서울: 학고방, 2015, 114쪽.

15) 왕언메이(王恩美),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서울: 학고방, 2013, 58쪽.

16)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고양: 역사비평사, 2008, 42-62쪽.

사무역 활동은 조선과 청나라 양국의 상인들에 의한 중계무역 형태로까지 발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개항 뒤 침투한 외래 자본주의에 밀려 해체되고 만다.¹⁷⁾ 그런데 사이버차이나타운에서 화교들의 왕성한 상업 활동의 전제는 개항으로 인한 외래 자본의 유입이라기보다 조선 상업의 미분화된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

“당시 조선사회는 상업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화교들은 여러 가지 상업 활동에 모두 종사할 수 있었고 이는 조선 사회와 조선 상인들에게 큰 위협이었다. 초기 화교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받아 일본인을 제외하고 조선에 가장 많이 거주한 외국인이었다.”(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한국화교이야기/한국화교의 성장)

19세기 후반, 초창기의 화교들은 국내에 정착

하는데 있어 오늘날처럼 거주 허가증이나 각종 증명서류 같은 번거로운 수속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화교들이 서울과 인천을 근거지로 하여 정착해서 직물 수입, 수입품 잡화, 옷감 장사, 피혁, 서구 수입품, 조선 토산품의 수출, 정기 여객선을 이용한 행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림2. “한국화교의 성장”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의 한국화교이야기 가운데 ‘한국화교의 성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 지역 화교들이 “전과”한 비단, 옷감, 면화, 양식, 고추, 마늘 등의 농수산물, 경공업품 그리고 중국식 건물을 짓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 목수, 기와공, 미장공들을 소개한다. 인천을 상업 활동의 중심으로 삼은 이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특히 인천 조계지 내의 중국 상인들은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중국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을 날로 번창시킨다. 사이버 차이나타운에서는 이처럼 중계무역으로 인천에 머무른 인천의 화교들, 예를 들어 1세대 화교라고 할 수 있는 1887년 “산동 연태지방에 살던 왕씨와 강씨”의 채소 전과 이야기, 1920년대 화교 경제의 번성기 “경성 시민 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인 “화상 동순태(同順泰) 사장인 담결생(譚傑生)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 관련 연구의 흐름 역시 크게는 중계무역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화교에 대한 구술사적 관점에서 인천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증언을 만들어 내는

17)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원 지음, 『한국문학 속의 중국담론』, 서울: 경진, 2014, 156-181쪽.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술적 증언에 기반 한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의 서사는 동일한 공간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타자로서의 화교와 함께 나눈다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의 서사에서 그 고통은 화교들만의 고통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술적 증언들에만 의존하는 서술은 오히려 화교를 기념해야 할 타자로 상정하고, 인천 차이나타운을 기념해야 할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¹⁸⁾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역사에서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와 더불어 식민의 기억을 함께 지닌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인 것이다.

물론 1920년대 서울과 함께 화교들의 양대 세력권을 구축하게 된 인천 차이나타운은 강요된 개항, 식민주의자의 거주, 피지배 민족의 강제 이주라는 불평등한 문화 접촉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제와 억압의 틈새에서 살아 온 화교들의 삶이 현재까지 이어져 융합된 곳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이 공동체에 가한 폭력에 대한 기억을 서술한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의 서사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할 계기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마도 이런 계기는 “일방적으로 강요되지 않을 때 더 많은 타자를 우리로 포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인천차이나타운은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와 극복해야 할 숙제가 남겨진 공간이다.

오카 마리는 기억을 말하는 것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천차이나타운의 구술사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구술사적 기록이 타자의 고통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의 공간 서사가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로 하여금 화교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것으로 공유하며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18) 오미일·배윤기, 「한국 개항장도시의 기념사업과 기억의 정치」, 『사회와 역사』 83(2), 2009, 83쪽.

3. 차이나: 국가, 이주, 자본

“인천역에서 내려 자유공원 쪽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중국풍 거리가 시야에 들어온다. 우뚝 솟은 패루를 지나 계속 경사진 길을 3백여 미터를 걸으면 T자형으로 길이 양쪽으로 나뉘고 주변 상가는 온통 중국의 거리에 온 듯이 느껴진다.”(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차이나타운의 역사)

인천 차이나타운은 붉은 색 간판과 홍등을 내걸고 거의 모두가 중국 일색인 상품과 음식들로 화려하게 단장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와조의 2층 벽돌조 건축물로 각각의 공간이 연속되어 있고 중국 특유의 원색을 사용해 화려한 색채를 강조했으며 박공형 지붕, 목조 청풍차양, 개발형 발코니가 특징인 중국식 점포 건축물”도 차이나타운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⁹⁾

하지만 인천 차이나타운은 조선 식민의 역사와 맞물린 개항으로 인해 시작된 이주민들의 지역으로, 붉은색만이 아닌 다양한 색으로 채색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화교들의 활동 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면서 공관과 중화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인들과 접촉하는 횟수도 날로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화교들과 한국인들 간의 충돌도 점점 많아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883년 7월부터 1884년 9월까지 한국과 화교 간에 발생한 채무 분쟁이 15건이며 액수는 30687량에 달했다. 정착 초기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지리적 환경이 달라 한국인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이 가운데에서 침략자 일본의 이간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차이나타운소개/한국화교이야기/한국화교의 성장)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의 상권을 쥐고 있던 조선 거주 일본인들은 늘어난 중국인들로 형성된 거주 지역을 비하하여 지나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일본이 현 중구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조차지로 설정하자 다음해 청나라도

19)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차이나타운소개/차이나타운의 역사.

해방 후, 정치적 혼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을 때,

華僑는 일제시기에 형성되어 있던 무역망을 이용하여 크게 일어선다. 1946년 전체 무역수입총액의 82%를, 1948년에는 52.5%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림3. “한국화교의 위축과 이동”

일본조계지를 경계로 지금의 차이나타운 일대를 조계지로 설정한다. 바로 “한중 문화관에서 자유공원으로 오르다 보면 경사진 돌계단이 나오는데 이곳이 청나라와 일본인이 살던 경계 지역”이다.²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돌계단들 사이에 둔 일본 조계는 조선의 상권을

나누어 가지며 朝淸日 삼국이 맞이한 근대의 상징인 셈이다.

물론 격변기 한국에 있던 화교들의 생활이 늘 안정적인 수만 없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화교 사회는 정부의 각종 제도적 제한과 차별로 위축되어 갔고 화교의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한국 전쟁과 인천상륙작전으로 거의 파괴되다시피 한 인천 화교 사회는 화폐개혁시기 거의 반수 이상 한국을 떠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이버인천차이나 타운 속 서사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화교들이 생각하는 조국이 타이완이라는 점이다. 인천차이나타운의 화교는 1898년 義和團의 北淸事變으로 인해 전란에서 피난 차 온 산둥성 중국인들이 상당수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대만”이며 산둥방언과 중국어(普通話), 그리고 한국말을 할 수 있다.²¹⁾ 그래서 이들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새롭게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중국인들인 ‘신화교’와 구별 짓기 위해 ‘구화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 왔으며, 소규모 자영업(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화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면, 학업 및 연구를 위해 유학을 오거나 기업 투자 및 연예 활동 등을 위해 한국에 온 중국인들은 신화교이다.²²⁾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화교 인구의 큰 흐름을 보면 대략 다음

20)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중국관련불거리/청일조계지와 공자상.
21) 승승석(2012)이 인천 차이나타운의 화교 손덕준의 구술을 채록하여 책으로 출판한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 가운데 ‘대한민국국민 누구냐? 난 아니에요’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던 이들의 정체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2) 박성준, 『한국 속 중국인들 ‘신화교’ 시대 열다』, 시사저널, 2013.10.21.

과 같다. 첫째, 80년대와 90년에는 아래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해외유학이나 취업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거주여건이 비교적 나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의 이민 등이다. 둘째, 그러나 1999년부터 2001까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이른바 IMF 금융위기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한도 역시 철폐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여건이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성장 및 한중 교류의 폭발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셋째,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현황은 관련 자료를 구하지 못해 정확히 서술하기 어렵지만, 상기 추세에 따라 예측할 경우, 향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후손으로 이루어진 기존 화교에 최근에 한국으로 건너오는 신이민 화교층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분간 이들의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차이나타운소개/한국화교이야기/한국화교현황)

차이나타운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경관이다. 초기의 화교 정착민들이 인천 차이나타운을 물품 거래의 장소로 활용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화교 상인들은 관광지로 개발된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 자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인천차이나타운이라는 경관은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화교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가 관광객을 흡수하고 그들의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생산하게 된 것이 또 다른 주요 원인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²³⁾

구화교와 신화교 간의 어우러지지 못함이 차이나타운의 또 다른 문화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천차이나타운에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욕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갈등의 상호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린 한국인들까지 더해져 치열한 경쟁과 대립은 미디어를 통해 과거 화교들의 공동체적 장소를 짜장면의 이미지로 재생산하면서 화교 들은 한때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짜장면타운’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도 했다. ‘짜장면타운’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우려할 정도로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는 현실 공간에서 짜장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23) 유예지, 『인천 차이나타운 경관의 상업화: 주체별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62-71쪽.

하지만 인천 차이나타운의 짜장면은 비단 인천 차이나타운 관광지의 먹거리 그 이상이다. 짜장면에 더해진 이미지는 단순히 최근의 인천 차이나타운에 생겨난 음식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짜장면 관련 동화, 만화, 소설, 영화 등의 과생 서사물²⁴⁾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²⁵⁾, 그리고 짜장면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박물관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 음식 문화의 원형인 것이다. 화교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화교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 '우리' 문화 속 음식으로서, 소수자와 다문화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말이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의 공간 서사에서 이주와 식민의 기억 이 두 가지가 함께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인천차이나타운은 분명 이주와 더불어 식민의 공간이다. 이 둘은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만약 인천차이나타운이 그들만의 공간으로 남아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기억 되지 못할 때, 이 공간이 지닌 아픔의 기억은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인천과 타운의 의미를 소홀히 한 채 '차이나'라는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진행되어야 하겠다. '차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경험의 강요가 삶이 아닌 이미지로만 남아 공간과 관람자 사이의 소통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한중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공간을 어떠한 미래와 소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 공간 속 사건들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 및 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4) '짜장면'을 키워드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시 짜장면 조리법과 관련된 7개의 자료를 제외하면, 총 61개의 관련 자료가 나온다. <http://www.dlibrary.net/>

25) 연규동의 「짜장면」을 위한 변명 -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한국어학』 30, 2006, 181-205쪽), 김만태의 「짜장면」의 토착화 요인과 문화적 의미」(『韓國民俗學』 50, 2009, 159-207쪽), 김기국·오세정의 「만화의 공간과 상상력의 스토리텔링 - 「만화 짜장면」과 만화 「리니지」를 중심으로」(『인문콘텐츠』 19, 2010, 279-300쪽), 이수진의 「소설에서 만화로」(『한국프랑스학논집』 63, 2008, 347-366쪽) 등이 있다.

4. 타운: 공간, 장소, 다문화

공간을 일반적으로 표상하는 말은 지역이다. 지역은 지리적이며 물리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지표상의 한 영역으로 거기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이 얽여지고 있다. 지역이 자연을 토대로 사람들의 사회적·문화적 관계가 형성된 일정한 지리적 영역(절대 공간)이라면, 공간은 고정적인 물적 구성물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사회적 관계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간이 사회적 관계에 가깝다면 장소는 각 개인과 집단의 역사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만일 장소가 관계적이고 역사적이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면, 정체성도 관계도 역사도 상징하지 않는 공간은 비장소라고 정의될 수 있다.²⁶⁾ 공간과 장소 두 용어를 엄밀히 구분할 경우 장소가 영토적 한계가 정해진, 문화적으로 근거한, 그리고 교묘하게 경계가 정해진 사회들을 재현하는 데 쓰이는 지리학적 관용어라면, 공간은 관계의 장으로서 장소들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으로 전환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²⁷⁾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라는 키케로의 말은 장소들의 특별한 기억력과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설령 장소가 고유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문화적 기억 공간들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이다.²⁸⁾

현재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 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화의 중층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현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적 중국·화교 연구 자료센터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의 연구는 인천 차이나타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⁹⁾ “민족분산과 지구적 소통으로서 디아스포라 연구”라는 주제로 세계한상문

26)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파주: 한울, 2013, 77-78쪽.

27) 이창호, 「한국 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2008, 79쪽.

28)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2011, 410-411쪽.

29) 전인갑 등(2012)의 『중국관행연구의 이론과 재구성』, 손승덕(2012)이 채록한 『안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인천화교 손덕준 가족이야기』, 秦裕光(2012)의 『중국인 디아스포라-한국 화교 이야기』, 王恩美(2013)의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 화교-냉전 체제와 조국 의식』,

화연구단에서 진행한 근현대 동북아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대한 연구 역시 인천차이나타운 화교를 연구의 한 축으로 하고 있다.³⁰⁾

그런데 한국 화교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은 소수 집단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장소에 뿌리 내린 구성원 모두에게 차이나타운이 비장소처럼 여겨지는 일을 실로 비극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는 장소에 대한 감각 혹은 장소성이 점차 중요시되는 관광산업의 미래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관광지의 물리적 건설보다도 이 장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일이다. 즉 이들의 사회적 교환들, 기억들, 이미지들, 그리고 물질적 배경의 일상적 사용에 대한 통찰은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과 장소, 장소성의 장기적인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³¹⁾

인천은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불법체류 등 비공식적 수치를 제외하고서도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은 다문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³²⁾ 근대 이후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주요 개항장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조계지가 설치되었던 인천은 지금까지도 차이나타운과 다양한 근대건축물 등 다국적 다문화 공간유산을 가진 도시인 것이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에서 불거리로 포함되어 있는 제3패루³³⁾, 의선당³⁴⁾, 스카이힐³⁵⁾, 삼국지벽화거리³⁶⁾, 인천교회³⁷⁾ 모두 다문화적 특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야스이 산기치(2013)의 『제국 일본과 화교-일본·타이완·조선』 등이 이미 연구 총서로 발간되어 있으며, 자료 총서로 『조선화교 관련 신문보도 자료목록(1882-1945) - 국내 신문을 통해 본 조선 화교의 삶』, 『조선 화교 관련 분쟁·소송 자료목록1(1882-1910)』 등이 있다.

30) 임채완 등(2013)의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가 대표적이다.

31) 정병호·송도영,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서울: 현암사, 2011, 82-103쪽.

32) 신성희,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33) 선린문이라고 쓰인 파란색 패루는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자는 뜻으로 옛날 이곳의 지명이기도 하다. (차이나타운/불거리/중국관련 불거리).

34) 인천 개항 후 인천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불어남에 따라 교화 및 정신적 안녕을 기리는 중국식 사당을 지었다. 산동지방의 도교 식으로 1893년경 세워졌다고 추정된다. (차이나타운/불거리/중국관련 불거리).

있는 공간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다문화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한중문화원이다.³⁸⁾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한중문화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직접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중국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한중문화원에서는 이곳이 “다채로운 공연, 특별기획전” 및 “중국문물전시실, 중국문화체험코너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지식, 체험, 흥미를 주는 문화적 메카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³⁹⁾

인천차이나타운에 있는 한중문화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체험적 전시에 있다. 체험적 전시란 말은 과학·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전시 프로젝트 및 박물관·과학관들의 건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시는 관람객에게 전시품의 문화적, 예술적 미적 체험을 통해 가치를 이해하고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의 현상이나 사회적 사건에 대해 시각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전시물은 시각적 언어를 통한 생각의 표현이자, 환경의 생산물이며 삶의 증거물이고, 경험의 재현이며, 느낌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제작물이다. 새로운 맥락에서 전시물을 이해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접근을 통해 전시물의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며 다시 한 번 전시물을 바라

35) 차이나타운 3패루(선린문)을 지나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조성된 계단으로 양 옆에 자금성, 만리장성, 갑골문자, 경극, 우수, 팬더 등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차이나타운/불거리/중국관련 불거리).

36) 청일 조계지 계단을 올라가서 밑으로 난 길 양쪽의 벽면에는 삼국지의 중요 장면을 설명과 함께 타일로 제작하여 장식한 벽화가 나온다.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림으로써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총 80여 컷의 장면이 있는데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차이나타운/불거리/중국관련 불거리).

37) 인천에서 중국어로 예배를 보는 곳이다. 원래 이곳은 1917년에 설립된 중화기독교 터로 한국에 세워어도 중국 본토의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기에 선교사들이 매우 오고 싶어 하는 교회의 하나였다고 한다. (차이나타운/불거리/중국관련 불거리).

38) 이상에 언급된 공간들은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학생들이 주요 탐구 대상으로 선택한 장소들이다. 특히 한중문화원은 중국문학과 중국문화 관련 수업 모두에서 공통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과제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39) 인천 한중문화관/문화관 소개/설립목적 및 연혁.

<http://www.hanjung.go.kr/introduce/history.php>

볼 때 이용객의 지식 역시 확장될 수 있다.⁴⁰⁾ 한중문화원의 전시 역시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중문화원의 전시물들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떠올리면서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 사건들에 대한 이해나 기억, 또는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한중문화원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차이나타운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⁴¹⁾

여기에서 박물관 평가 전문가인 Falk와 박물관 행정가인 Sheppard의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전시 공간의 성공은 공간의 규모나 컬렉션의 양, 대형 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교류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적 가치를 입증하고 성찰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전시물에 대한 해석은 ‘전시물 기반 인식론’에서 ‘전시물 기반 대화’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했다. 전시물 기반 인식론은 박물관의 전시물이 여러 시대, 문화, 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것들으로써 이러한 대표성에 갖는 절대적 위치, 가치, 의미와 사실을 관람객에게 잘 전달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박물관에서 전시물의 수집, 보관, 연구를 맡은 사람은 새로운 지식의 창조자와 같은 막강한 권위를 지니게 된다. 상대적으로 이 시각에서는 전시물을 관람하는 관람객의 개인적 시각과 의미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공간에서든지 전시물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시대적, 교육적 의미와 맥락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전시물과 관련하여 관람객이 어떤 기억, 생각, 지식, 관심, 배경, 경험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맥락 중에서 관람객과 전시물 간의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관계성이 성립될 때 비로소 그 전시물은 관람객에게 호기심과 상상력, 경이로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경험이 되어 대화와 탐구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⁴²⁾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확충될 한중전시관의 전시물들에 대해 관람객들이 맥락 있는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40)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박물관 교육』, 서울: 예경, 2005, 24-28쪽.

41) 인천광역시 한중문화관/한중문화관 소개/설립목적 및 연혁.

42) 최중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서울: 문음사, 2010, 109-157쪽.

이유이다.

인천차이나타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짜장면박물관의 경우, 이 공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최소한 짜장면과 관련된 경험을 자신들의 기억과 접합시켜 나가며 짜장면박물관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짜장면박물관이 시간의 흐름 및 관람객들의 참여와 더불어 완성되는 공간 서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물론 짜장면박물관 역시 전시물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인한 한계가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공간을 들어선 이들은 짜장면박물관을 그들만의 공간으로 한정짓고 '불거리'로만 여기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한중문화원 역시 방문자 스스로 공간이 지닌 기억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공간 구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인천차이나타운을 다문화사회 속 한 공간으로 파악하고 그 공간의 다원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곳이 구경거리가 아닌 삶의 현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항과 식민 그리고 이주가 만들어낸 인천 차이나타운의 다문화성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회색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공간 내 소통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다문화 사회로서의 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됨으로써 자유공원의 맥아더장군상과, 돌계단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조계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관광객의 다양한 시선 교차 가능성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차이나타운을 활용한 체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미디어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능력의 배양에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이버차이나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 공간은 차이나타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전달만이 아닌 참여와 자기표현, 소통 및 연대의 도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문정진, 「博物館, 敍事, 空間 - 짜장면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試探」, 『中國語教育과 研究』 18, 2013, 219-236쪽.

5. 나오는 말

인천상공회의소(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의 주관 아래 구축된 사이버인천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소중한 문화와 관광자원”으로서의 차이나타운의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목적 또한 “차이나타운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이버차이나타운이 구성하는 총 6개의 카테고리를 살펴 보면 차이나타운소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잘거리, 커뮤니티로 모두 관광수요자의 측면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차이나타운의 관람객 체험 시설 역시 그 공간을 일회성으로 경험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 차이나타운은 관람자들이 스스로의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재창조될 수 있는 공간이기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화교”라고 하는 구성원에 대한 서사만이 아닌, 공간 전체 대한 맥락을 갖춘 서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관람자들로 하여금 공간이 전하려는 사건의 기억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공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차이나타운이 실제 공간인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기 위한 사전(혹은 사후) 공간으로서 갖는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양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집단지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앱의 개발과 연동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늘어가는 중국인 관광객들 역시 정보를 제공받고 또 인천차이나타운을 한중 관계의 소통을 증폭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기념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중국어 사이트의 운영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선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이 지닌 가치는 상업적인 경관을 넘어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강경표·안일국, 『인천 차이나타운 淸館』,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2.
- 권기균 외,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 인문학의 시선으로 과학을 본다』, 서울: 에르디아, 2012.
-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서울: 예경, 2005.
- 신성희,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2011.
- 야스이 산기치(安井三吉), 『일본 제국과 화교』, 서울: 학고방, 2015.
- 왕언메이(王恩美),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서울: 학고방, 2013.
- 유예지, 『인천 차이나타운 경관의 상업화: 주체별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고양: 역사비평사, 2008.
- 이창호,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7.
- 오카 마리, 『기억 서사』, 서울: 소명, 2004.
-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2010.
- 임채완 외,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 서울: 북코리아, 2013.
- 정병호·송도영,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서울: 현암사, 2011.
- 秦裕光, 『중국인 디아스포라 한국 화교 이야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파주: 한울, 2013.
- 조세현, 『부산화교의 역사』, 부산: 산지니, 2013.
-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 지음, 『한국문학 속의 중국담론』, 서울: 경진, 2014.
-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편, 『한국박물관교육학』, 서울: 문음사, 2010.
- 파트릭 사비당, 『다문화주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의 방식』, 광명: 경진, 2012.
- 김나영, 『부산 차이나타운의 가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성과 국가주의 간의 길항』, 『역사와 경계』 78, 2011.
- 김영국, 『인천 차이나타운 방문객의 체험요소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

- 학연구』 22, 2015.
- 문정진, 「博物館, 敍事, 空間-짜장면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試探」, 『中國語教育과 研究』 18, 2013.
- 오미일·배윤기, 「한국 개항장도시의 기념사업과 기억의 정치」, 『사회와 역사』 83(2), 2009.
- 이창호, 「한국 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2008.
- 김명균, 「인천상의, '사이버 차이나타운' 홈페이지 개설」, 연합뉴스, 2008.11.12.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081112145807451>
- 차준호, 「인천 차이나타운 '100년 캡슐' 열렸다」, 동아일보, 2015.7.9.
<http://news.donga.com/3/all/20150709/72368004/1>
- 박성준, 「한국 속 중국인들 '신화교' 시대 열다」, 시사저널, 2013.10.21.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78>
- 사이버인천차이나타운 <http://www.ichinatown.or.kr/> (2016.2.9)
- 세계한상문화연구단 <http://www.hansang.or.kr/> (2016.2.9)
- 인천대학교중국학술원 <http://aocs-dc.inu.ac.kr/Archive/Search.php> (2016.2.9)
- 인천광역시 한중문화관 <http://www.hanjung.go.kr/> (2016.2.9)

〈Abstract〉

The most significant impact that the tourists visiting Incheon Chinatown give to the local residents can be found in its social economy. However, the Chinatown will hope to be remembered by the visitors as a tourist attraction. For this, the study suggests that providing balanced information should be prioritized and that the space should be restructured in order for visitor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tervene into the space. In other word, the interpretation of space needs reconsidering so that visitors can re-evaluate the memory about the space they are in now from the point of current view. In addition, the Cyber Incheon Chinatown plays an essential role as a pre (or post) space for visiting the real Chinatown.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the space, various devices, such as new apps and app links for educational purpose, and Chinese websites

for an arena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rich information for increasing Chinese tourists, should be added.

The Chinatown links abstract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China with the real world. That is the reason that the Cyber Chinatown should be an educational site that connects the memories in the past to today's events.

Keywords: Chinatown, Cyber Incheon Chinatown, Overseas Chinese, Multiculture, Education. Narrative.

이 논문은 2016년 1월 16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